

“1점이라도 더” 집중 또 집중... 고3 교실 막바지 열공

르포-수능 D-7 조대여고 가보니

수험생들 긴장감 속 치열한 마무리 공부 한창 수능 당일 시간표 맞춰 수면·식사패턴도 유지

“D-9. 할 수 있다는 믿음, 조금만 더 힘 내...”

지난 7일 오후 7시40분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여자고등학교 3학년 8반 교실은 불현듯 울려가던 ‘도르르’ 소리가 마치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릴 만큼 요란했다.

책장을 넘기고 글씨 쓰는 소리 외엔 침묵의 소리만 미세하게 귓전을 때렸다.

정규 수업은 이미 모두 마친 터여서 3학년 주임 이호성(45) 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학생 30여 명은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중이었다.

교실 외벽엔 ‘힘내자’, ‘조금만 더’, ‘수능이 미래를 바꾼다’ 등의 붙임표지가 눈에 띄었다.

책상과 책상 사이는 가득 쌓여 있는 ‘2018 수능 EBS 모의고사 기출집’ 등 수능 교재·노트가 차지하고 있었고 칠판 한쪽에는 ‘D-9’라고 적힌 글씨가 수험생들의 긴장감을 말해주는 듯했다.

A(18)양은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면서 수능(16일) 당일 시험 일정과 똑같은 수면·식사패턴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생활 패턴을 갑자기 바꾸면 시험 당일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시험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A양은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꼭’ 찍어준 문제와 기출문제 위주로 마무리 공부를 하고 있다”며 “며칠 전부터 수능 시

험 시간표에 맞춰 영역별로 학습하고 쉬는 시간도 수능 당일에 맞게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대여고는 실전경험을 쌓기 위해 오는 11일·13일·14일은 수능 시간과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반 B(18)양은 요즘 마인드 컨트롤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달 치러진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도 전과 달리 매우 어렵게 출제되면서 주변 분위기가 술렁이면서다. B양의 성적은 모의고사 평균 1~1.2 등급 안팎. 수시모집에선 서울대·고려대 등에 원서를 넣었다.

B양은 “모의고사 성적만 따지면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 적은 없지만 그간 수능시험 난이도가 널뛰기 추세를 보여 조금 불안하다”며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생명과학 II 부분을 중심으로 기출 문제를 하루 2차례씩 풀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C양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긴장되긴 마찬가지다.

성적 1등급으로 상위권인 C양은 의대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수능시험이 쉬워지면 변별력이 떨어지고 한두 문제를 실수할 경우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는 생각이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C양은 “요새는 소화가 잘 안 된다. 긴장하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며 “수능 당일 기름진 음식을 뺀 도시락으로 준



조선대학교 여자고등학교 3학년8반 학생들이 지난 7일 밤 교실에서 2018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비해 같 것”이라고 했다.

고3를 마주하는 고3 담임교사들의 마음도 수능을 앞둔 제자들과 같다.

올해 영어영역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는데, 예상보다 난이도가 높았고 학생들이 체력적으로 약해진 시기여

서 자칫 체력 안배에 실패해 시험을 망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이성호 교사는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의 경우 1교시 국어 영역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도 있다. 학생들이 모의 고사를 치르면서 마음

으로 시험을 봤으면 한다”며 “현재 지난 모의평가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틀린 문항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풀어볼 시키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수험생에 가장 힘 되는 말 “넌 잘할 수 있어”

3월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열심히 공부할 과목은 수학

고3생에 최고의 격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코앞에 둔 고3 수험생들은 가장 힘이 되는 격려로 ‘넌 잘할 수 있어’를 꼽았다.

8일 유웨이중앙교육이 유웨이닷컴에서 수험생 63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벌인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힘이 되는 격려로는 ‘넌 잘할 수 있어’(28.5%)가 꼽혔고 ‘시험 끝나고 꼭 쉬자’(26.5%), ‘침묵의 응원’(26.3%), ‘너를 믿어’(12.4%), ‘실수만 하지 마’(6.3%)가 뒤를 이었다.

수험생들은 3월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열심히 공부할 과목으로 수학을 가장 많이 꼽았다.

수학을 가장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응답

은 평소 모의평가 등에서 평균 1~2등급을 받는 수험생 가운데는 37.6%, 3~4등급은 37.1%, 5~6등급은 32.9%, 7~9등급은 30.4%로 성적과 상관없이 고르게 나타났다.

수험생들은 수능 날 ‘아는 문제를 실수하는 것’(31.9%)을 가장 걱정했다. 이어 ‘시간이 부족해 문제를 다 풀지 못하는 것’(30.3%), ‘급격한 컨디션 난조’(26.3%), 기타(6.0%) 등을 우려했다.

수능 후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여행(28.7%), 친구들과 놀기(23.3%), 집에서 잠자기(18.7%), 밀린 드라마·영화 보기(18.7%), 쇼핑하기(10.6%) 순서였다. 선물로는 용돈(39.9%), 최신 스마트폰(28.8%), 옷·가방(27.1%), 백화점 상품권(3.2%), 외식 상품권(1.0) 순으로 받고 싶어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전남 수험생 3만7949명 응시

휴대전화·전자시계·개인용 사프펜을 반입 금지

수능 시험과 주의할 점

오는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광주·전남지역 수험생 3만 7949명이 응시한다.

8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16일 시(38곳)·도(47곳) 85곳 시험장에서 광주(2만231명)·전남(1만7718명) 수험생 3만7949명이 치른다. 이는 지난해 3만6958명보다 991명 감소한 숫자다.

시험시간은 오전 8시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다. 다만, 뇌병변·경증시각장애 등 운동장애 수험생은 오후 8시20분까지 수능시험을 볼 수 있다. 시험이 끝나는 최종시간은 밤 9시20분이다.

1교시(국어영역) 미선택자를 포함해 모든 수험생들은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

야 한다. 휴대전화·디지털카메라·MP3 플레이어·전자사전 등 모든 전자기기는 휴대할 수 없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를 휴대할 수 있지만, 통신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반입 금지 물품이다. 개인용 사프펜과 볼펜 등은 휴대 금지 물품이므로 압수 조치하며,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예비소집은 15일 오전 10시 재학(출신 학교)·중인 고교에서 진행된다. 수능성적 발표일은 다음달 6일이다. 성적통지표는 응시자 재학(출신) 학교에서, 타 시·도에서 응시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각각 배부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경도 화재 화순탄광

빠르면 12일께 복구

지난 8일 경도 내부 화재로 석탄 채굴작업이 일시 중단됐던 화순탄광이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이르면 12일께 복구가 완료될 예정이지만 안전 여부 등 상황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근로자 70여 명이 경도로 들어가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소방당국과 광업소는 경도 200m 화재 발생 지점에서 배선 일부가 불에 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추후 감식과 안전진단을 앞두고 기초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광업소는 12일까지 복구를 완료할 예정이지만 안전 진단과 복구작업 결과에 따라 석탄 채굴 작업은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 화순 탄광 하루 평균 생산량은 750t이다. 경찰은 9일 정밀감식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수=나성종기자 nsj@kwangju.co.kr

음주 운항 특별단속 낙시어선 35건 적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8일 가을철 낙시어선 안전저해 행위 및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여 3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이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관할구역 해상에서 낙시어선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 음주운항 등 모두 3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3건보다 8건(18.6%) 감소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안전수칙위반이 20건(57.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구명조끼 미착용 5건(14.2%) ▲출·입항 미신고 4건(11.4%) ▲음주운항 선박 4건(11.4%) ▲미신고 낙시어선 2건(5.9%) 순이다.

관할구역별로는 목포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여수(11건)·군산(2건)·부안(1건) 등이었다.

서해해경 관할구역은 목포·여수·완도·군산·부안인데, 완도에선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완도해경은 지난해 11건을 단속했다.

서해해경은 관할구역 내 낙시어선의 입·출항에 대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한 뒤 소속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과 합동단속을 벌였다.

서정원 서해해경 구조안전과장은 “낙시어선 대다수는 소형어선으로 많은 승객을 싣고 먼바다까지 운항해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남해 해상에서 지난달 한 달간 낙시어선 이용객은 15만3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4900명보다 2만8100명(22.4%) 늘어난 수치다. /김한영기자 young@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애완견 입마개 안했다며 뺨 세례

○~20대 여성이 애완견에게 입마개를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행인에게 뺨을 맞아 112에 신고.

○8일 경기안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9시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관악대로에서 1살 된 시베리안 허스키를 데리고 산책하던 A(여·20)씨는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뺨을 한 대 맞았다고 112에 신고했다는 것.

○A씨는 경찰에서 “한 여성이 ‘애 입마개 없이 개를 끌고 나왔느냐’라고 따지며 50m가량 쫓아와 폭행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폭행한 여성을 추적 중. /연합뉴스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

**부동산 투자 !
최 선 규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오천경매 H. 010-3605-5000